

보직자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개최

- 임기철 총장 비롯한 보직자 15명 참석...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캠퍼스 조성 위한 맞춤형 교육 진행



▲ 임기철 총장을 포함한 보직자들이 활동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을 학습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**보직자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, 보다 평등하고 안전한 캠퍼스 조성을 위해 폭력예방교육**을 진행했다.

지난 21일(목) 오룡관에서 개최된 이번 교육은 **‘보다 큰 권력의 선한 영향력’**을 주제로 임기철 총장을 비롯해 김상돈 교학부총장, 이광희 연구부총장 등 **보직자 15명이** 참석해 **인권감수성과 성인지감수성을 점검**하는 시간을 가졌다.

교육을 맡은 **젠더교육플랫폼효재의 김명륜 원장**은 2010년부터 성평등 교육, 젠더폭력예방교육, 성인지 교육 등 다수의 강의를 하고 있으며, UN여성훈련센터 ‘젠더트레이너 전문가 훈련과정’을 한국인 최초로 수료한 **폭력예방교육 분야 전문강사**이다.



▲ 황금명륜 강사가 GIST 오룡관에서 폭력예방교육 강의를 하고 있다.

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구성원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말할 수 있고, 제기된 불편함에 대해 서로 열린 자세로 대화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.

아울러,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주변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개입 전략을 생각해보고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.

임기철 총장은 “**서로 신뢰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GIST가 될 수 있도록**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앞장서 달라”면서 “GIST 구성원들이 보다 평등하고, 안전한 교육·연구 환경에서 학업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**지속적인 관심과 노력**을 기울이겠다”고 소감을 말했다.

한편, 권익인권센터에서 추진한 이번 교육은 인권친화 캠퍼스를 만들고,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**‘성희롱·성폭력예방을 위한 고위직 맞춤형 법정 의무교육’의 일환**으로 진행됐다.